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03	01. 10	01. 17
대표 기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효중 집사
성경 봉독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효중 집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 1.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키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예배 후 선물 받아주세요)
  - 2.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계5~22장)
  - 3.신년예배- 오후 12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브레멘교회협의회 새 규칙)
  - 4.성경 통독-김영희 권사, 정진순 사모
  - 5.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김민혜 자매(27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새번역)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301장 ..... 다같이
- 기 도 Gebet ..... 김영희 시무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출20:17, 신5:21 ..... 김영희 시무권사  
(2.Moses 20:17, 5.Mose 5:21)
- 설 교 Predigt .....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 426장 .....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됐습니까?

신앙은 정신적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지적 유희를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만지고 지나간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큰 부담을 주는 장엄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특별하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특별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불꽃처럼 살고 싶은 것은 왜소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에 아랑곳없이 안일하게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동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엄한 전쟁을 외면한 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십니까?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는다면 적군의 포로가 되어 어둠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삶이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작은 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살지 않아서 받을 고통에 비하면 진실로 행복한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전투 /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담임)

\*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열매다.  
- Jonatan Edwards(미국 청교도 신학자) -